

“2024시즌은 선수와 팬, 모두가 MVP”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 광주매일TV 영상 인터뷰

변함없는 뜨거운 팬心 부응 “내년에도 목표는 우승”
타이거즈 왕조 구축 사명감...성적으로 보답하겠다



“이번 (2024년) 시즌은 선수와 팬들 모두가 MVP라고 생각합니다.”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26일 오전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과 함께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 시즌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내년에도 왕조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먼저 우승의 기쁨을 되새기며 팬들과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내년 시즌 2연패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감독은 “팀을 결국 성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플레이를 주문하며 더욱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시즌에도 광주시민들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을 빛낸 마음 속 MVP가 누구냐는 질문에 이 감독은 단호히 “선수들뿐 아니라, 야구팬



모두가 MVP다”라며 “야구는 팀 스포츠다. 개개인의 실력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다. 광주 시민들께 우승이라는 선물을 드리

기 위해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오는 30일 오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예정된 우승 축하 카퍼레이드에 대한 설렘도 감추지 않았다.

이 감독은 “아무래도 카퍼레이드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데,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선수 시절 우승했던 지난 2017년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기에 감독으로서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낀다”며 “37년 만에 광주에서의 우승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며 힘줘 말했다.

끝으로 이 감독은 올 한해 수많은 성원을 보내준 광주시민들에게 내년을 향한 변함없는 지원도 당부했다.

이 감독은 “올 시즌 저허가 우승하는 데 있어 광주 시민들의 응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26만 명이라는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고, 그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팬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타이거즈 왕조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환히 미소를 지었다.

한편, 올초 어수선한 팀 분위기 속에서 취임한



26일 광주매일신문 TV스튜디오에서 영상 인터뷰에 나선 이범호 감독

이 감독은 탁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선수단을 아우르면서 이른바 ‘소통 야구’로 올 시즌을 석권했다.

전신인 해태시절을 포함해 타이거즈에서 뛴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든 사령탑이 됐고, 김용우(해태), 조범현(KIA), 김기태(KIA)에 이어 네 번째 타이거즈 우승 감독 타이틀을 달았다.

또한, 한국프로야구 42년 역사에서도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20번째 감독이 돼 KBO리그의 새로운 명장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주홍철 기자

류재선 광주시새마을회 회장 대한씨름협회 회장 선거 출마

“소통과 혁신으로 선수를 위한 협회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류재선 광주시새마을회 회장이 제44대 대한씨름협회 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류 회장은 26일 오후 4시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44대 대한씨름협회 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통 문화와 현대 스포츠가 결합된 가치 있는 씨름 종목 중흥을 위해 전문적인 경영과 회장의 역량을 집중해 선수, 지도자 등 씨름인들이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류 회장은 씨름협회가 발전해야 씨름인의 복지와 처우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으로 47지 목표표를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 오랜 경영 전문가로 대한씨름협회 변화와 혁신 주도. 둘째, 씨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동기부여 방안 마련. 셋째, 씨름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시도. 넷째, 씨름 협회와 소통 강화. 넷째, 씨름 인위에 군림하지 않고 씨름인과 씨름



류재선 광주시새마을회 회장이 26일 열린 대한씨름협회 회장 선거 출마기자회견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출신인 류 회장은 전남씨름연합회 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회장, 한국대학씨름연맹 부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대한씨름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시새마을회 회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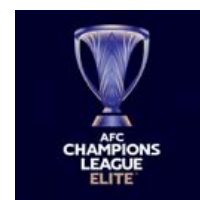
/박희중 기자



광주FC 아시아가 지난달 22일 열린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 조호르 다를 탁침과의 경기에서 전반 3분 선제 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아사니 발끝을 주목하라”

광주FC, 오늘 안방서 상하이 선화 상대 ACLE 5차전



아시아 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광주FC가 이번엔 중국 팀을 홈으로 불러 들인

다. 광주는 27일 오후 7시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준우승팀 상하이 선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ACLE 리그 스테이지 5차전을 갖는다. 지난 ACLE 4차전에서 고배에 일격을 당한 이번 홈경기 승리로 1위 탈환과 함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ამ까지 휴식기를 보약으로 삼은 광주는 지난 전북과의 K리그 최종전에서 회복된 체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특히 잔디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며 팀에 따라 특유의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공격 축구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단연 아사니다.

ACLE에서만 6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사니는 올 시즌 단 20실점으로 중국 슈퍼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한 상하이 선화의 밀집 수비를 깨트릴 핵심 선수다.

아매치를 치른 후 리그 최종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ACLE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한 아사니는 이희균, 정호연

등과 호흡을 맞추며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난 전북전에서 과감한 돌파로 직접 페널티킥을 얻어낸 데 이어 깔끔하게 성공시킨 신창무의 활약이 중요하다. 뛰어난 피지컬과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는 조성권은 상대의 주공격 루트인 측면 돌파를 막아내는 특명을 받았다.

상하이 선화는 현재 ACLE 리그 스테이지 2승 1무 1패로 승점 7점을 기록하며 조 5위에 올라있다.

리그 최종전을 마치고 ACLE에 집중하게 된 광주FC는 2024시즌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겠다는 각오다.

특히 지난 고배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며 승리 행진이 꺾인 만큼 이번 상하이 선화와의 경기에서 승리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주일 후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우승팀 상하이 하이강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광주에게 이번 홈 경기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일본 팀들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광주가 구단 사상 처음으로 맞붙는 중국 팀을 상대로는 또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 기자>

불굴의 투혼...원정 최고 득점·최다 메달 획득



26일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에서 내·외빈과 선수들이 전남장애인체육 발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전국장애인체전 빛낸 전남선수단 해단식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원정 최고 득점으로 종합 9위를 달성한 전남선수단 해단식이 열렸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6일 전남체육회관에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 등을 비롯한 선수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개최했다.

해단식은 제전 참가 결과 보고, 선수단기 반환, 감사패 등 시상과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50, 은50, 동50, 총 180개

메달을 수확, 총 득점 10만5천663점으로 원정 최고 득점과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종합 9위를 차지한 전남은 17개 시·도 중 가장 모범이 된 선수단에 주어지는 으뜸선수단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전남선수단 선전에 앞장 선 사이클 박솔기(한전KDN), 육상 김정하(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격 이윤리(완도군청), 육상 황상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클 허운정(전남도장애인사이클 연맹), 배드민턴 정겨울(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대회 첫 결승 진출 주인공 지석 축구 권봉준(전남도장애인축구

협회)이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카누 종합 우승을 차지한 전남장애인카누선발팀과 전남장애인 사이클연맹, 전남장애인볼링연맹이 입상단체상을 받았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파리 패럴림픽의 영광을 이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또 한번 한계를 뛰어넘는 끝없는 투지와 열정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더 나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업연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무안초 여자 핸드볼팀 전국 꿈나무대회 2연패

골키퍼 서민희, 대회 MVP

무안초 여자핸드볼팀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제9회 김중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유종의미를 거뒀다.

무안초는 지난 25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여자 초등부 결승에서 금천초를 14-11

로 꺾고 우승,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무안초 오주희와 이설이 5골씩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고,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골키퍼 서민희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박해선 감독과 김한나 코치는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과 7월 태백산기대회 준우승에 그쳤던 무안초는



제9회 김중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무안초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올해 마지막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며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대한핸드볼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

회에는 남자 초등부 16개 팀과 여자초등부 11개 팀, 총 27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박희중 기자>